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고 성 혜*

- I. 문제제기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문제
- IV. 연구방법 및 절차
- V. 연구결과 및 해석
- VI. 결론 및 논의

I. 문제제기

양육 스트레스는 가족 체계가 직면하는 발달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스트레스이다. 자녀의 존재는 부모에게 심리적 사회적 안정감을 주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되며, 자신의 삶을 반성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자녀 양육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과 가사노동의 증가는 어머니로 하여금 개인 생활을 가질 만한 여지를 주지 않고, 정체감 상실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 자녀의 유별난 행동과 기질, 어머니의 성격이나 가치 지향과 기본 정서등은 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어머니와 자녀의 기

질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 어머니는 자녀의 느낌이나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진다. 사회가 혼탁해지면서 드러나는 자녀양육 가치의 혼미 및 부재 현상 역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더 부추긴다.

부모-자녀 체계의 중심 인물인 어머니가 과도한 양육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모로서의 역량감에 회의를 느끼고,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없을 만큼 위축된 행동을 보이며, 결국 자녀의 정서적, 행동상의 문제를 낳게 된다. 이러한 부모-자녀 체계의 긴장과 부담은 가족내 다른 하위 체계로 전이되고, 가족 전체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육 스트레스는 어느 가족에게나 예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김영미, 1990; 배인숙, 1993; 정재은, 1993)에서는 장애아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물론 장애아 가족의 스트레스가 높고, 건강한 부모-자녀관계 정립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보다 보편적인 다수 가족의 부모-자녀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고,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으로 부여되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심할

* 한국청소년개발원 선임연구원

것으로 예상되어 정상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다루고자 한다. 양육 스트레스와 개인적 차원과 환경적 차원의 변수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Belsky의 상황적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의 보편적 경향을 파악하여 부모 교육 및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대안 마련의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인간의 감정, 사고 과정과 육체적 상태에 영향을 주는 긴장 상태로 정의되며, 개인이 기대한 바와 실제와 차이가 날 때 혹은 개인과 조직등의 시스템에 균형이 깨질 때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스트레스는 상황의 조건에 따라 긍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 충족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걱정 혹은 근심을 느끼게 하며(정재은, 1993), 심한 스트레스가 쌓일 경우, 자아 기능이 저하되고 적응 능력이 제한을 받아 분노, 무력감, 무기력, 수치감을 느끼게 된다(이정균, 1984).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 정의나 연구는 다양하게 시도되었지만,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개별적 정의나 연구는 미흡하다.

양육 스트레스는 구체적 상황 하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가족 체계가 직면하는 발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스트레스이다. 부모들은 자녀양육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피로감을 느끼고(Webster-Stratton, 1988), 자신의 정

체감을 유지하는데 불만을 느끼고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Aibidin, 1990).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예측될 수 있다 해도, 발달단계가 각기 다른 부모나 자녀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내적,외적 요구가 이를 다루어 갈 적응 자원보다 지나치면, 부모 자녀간의 갈등과 좌절이 일어날 뿐 아니라, 가족의 복지를 위태롭게 한다(이재연, 최영희, 1990).

Abidin(1990)은 양육 스트레스의 개념을 자녀의 행동 특성에 대한 부모의 지각, 부모로서 자신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지각 정도와 일반적인 생활 사건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 3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 가운데 양육 기능과 더욱 밀접한 영역은 부모영역 스트레스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Abidin의 견해를 취하되, 부모영역에 제한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 스트레스를 개인과 가족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달,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되는 가족 체계내의 긴장과 압력(Boss, 1987)으로서 자녀양육으로 인해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 정도나 부담감으로 본다.

2.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 변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서구보다 더 밀착되어 있고, 효 사상이 약화되었다 해도 자녀에 대한 가치나 기대는 서구에 비해 전통적이다. 또한 사회적 상황 이동을 할 수 있는 요건이 확력인 만큼 부모의 과도한 학구열 역시 부모-자녀관계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Belsky(1984)는

부모-자녀간의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자녀의 기질이나 행동수준, 어머니의 우울성향, 가치지향 등 개인적 속성과 직장이나 가족, 사회지지 체계 등 상황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상황적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모델은 부모-자녀관계를 역동적으로 파악 가능하고, 효 사상과 남아 선호 사상 및 과도한 학구열이 강한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상황적 차원에 포함시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속성에 관한 요인을 자녀관련 변수와 어머니관련 변수로 구성하고, 가족환경 변수를 상황적 요인으로 다루고자 한다. 세 요인으로 나누는 이유는 양육 스트레스가 다요인의 산물이며, 각 요인의 영향력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어머니는 자녀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자이며, 아버지에게 비해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많아서, 어머니의 개인적 역량이나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 관련 변수를 구성하였다. 자녀 관련 변수를 따로 구성한 이유는 양육 스트레스가 단지 어머니의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특성으로 인해 부모의 행동을 유발한다는 생태학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부모가 원하지 않은 성별의 자녀이거나 유난히 까다로운 기질을 보이거나 부모가 용납하기 힘든 문제 행동을 자주 하는 경우,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부모-자녀 관계의 산물인 것은 분명하나, 가족체계의 특성에 의한 영향력을 전혀 도외시 할 수 없다. 아버지의 직업이 안정성이 없거나 하위직인 경우, 대가족이나 형제 수가 많은 경우나 부부간의 갈등이 심한 경우, 가족은 과도한 심리적, 신체적, 구조적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가족 체계의 평형

이 깨지거나 적응력이 떨어지게 된다(Belsky, 1984; Pagelow, 1984; Starr, 1988). 가족 내 외적 요구에 의해 가족체계에 내재한 긴장과 욕구불만이 팽배할 때, 더 이상 가족은 양육 스트레스의 지원 체계 구실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가족 환경 관련 변수를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한국 사회에서의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이라는 점에 대한 거시 환경의 맥락하에 어머니 요인과 자녀 요인과 가족 환경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 연구의 부족으로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까지 포함하여 연구 결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자녀관련 변수

양육 스트레스는 주 양육자의 특성 뿐 아니라 대상자인 자녀의 특성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특성 요인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여러 변수 중에서 자녀의 학년별, 성별, 건강, 학업 성적과 문제 행동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고찰한다.

자녀의 성별, 학년별, 건강, 학업 성적과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이들 변수는 부모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서(Star, 1988; Belsky, 1984) 언급되어 왔다. 특히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한국 문화권 내에서 자녀의 성별은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이다. 부모가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아들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가 더 큰지 혹은 폭력화되어 가는 사회내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딸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가 더 큰지 여부는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의 변화되는 모습을 밝혀 주고, 부모

교육의 기초 자료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 규명될 필요가 있다.

자녀의 학년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 역시 거의 없다. 그러나 자녀가 새로운 생활 경험을 하며, 역할 변화를 앞둔 시기에는 긴장이 고조될 수 있으므로, 학교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1학년이나 중학교 진학을 앞 둔 6학년생 어머니와 학교생활 적응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다룰 필요가 있다. 이 결과는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에 기초 자료로 제시될 수 있으므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

자녀의 건강 정도와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지만,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김영미, 1990; 배인숙, 1993; 정재은, 1993) 결과를 통해 자녀의 건강이라는 변수의 중요성을 시사받을 수 있다. 장애아 부모들은 자녀를 돌보는데 시간과 신체적인 에너지를 많이 소요하게 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이로 인해 여러 측면의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정재은, 1992)고 보고하였다. 비단 장애아가 아니라도 자녀가 건강하지 않은 경우 부모는 자녀양육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정상아의 건강 상태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있음을 예측되며, 경험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학업 성적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 역시 없다. 그러나 학업 성적은 부모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다(한국교육개발원, 1993). 한국 사회에서는 고등 교육을 받는 길이 사회적 상향 이동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자녀를 상급 학교로 진학시키려

하고, 지나치게 학업 성적과 결과에 매달리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부모는 부모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자녀는 자녀대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되어 버렸다. 학교에서도 전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간관계 역시 기계적으로 되어 간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 자녀가 공부만 잘 하면 다른 어떠한 행동을 제대로 못해도 용인해 주고,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의 모든 행동을 공부와 연관시켜 문제삼는 부모의 태도는 부모-자녀관계를 왜곡시키고 있다. 따라서 자녀의 학업 성적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자녀의 문제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송주미, 1992; Mash & Johnstson, 1983)에 의하면 자녀의 문제 행동과 양육 스트레스는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문제 행동을 많이 하면, 어머니는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존감과 부모로서의 자신감이 손상되어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자녀에게 적대감을 투사하게 되고, 이에 자녀는 문제 행동을 더욱 빈번히 하게 되는 부정적 악순환이 계속 된다(Lahey, Conger, Atkeson & Treiber, 1984). 선행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는 바, 본 연구에서는 학동기 자녀의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자녀의 문제 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상 살펴본 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자녀 관련 변수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자녀 관련 변수와 양육 스트레스와의 직접적 관계를 다룬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아동의 성별, 학년별, 건강, 성적, 문제 행동과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2) 어머니 관련 변수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특성은 양육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의미있고 중요한 변수이다. 여기서는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건강, 우울성향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의 결과를 고찰한다.

어머니의 연령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연령이 스트레스와 무관한 변수라고 보고한 연구(권경희, 1985; 전세경, 1988)도 있고, 20대 어머니가 30대 어머니보다 일상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경험한다고 보고한 연구(남유리, 1989; 이영석, 최외선, 1993; 정민자, 1992)도 있어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연령은 전반적인 부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Belsky, 1984). 젊은 어머니는 나이든 어머니보다 자녀양육에 대해 더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자녀에 대해 비현실적 기대를 하고(Field, Widmayer, Stringer, & Ignatoff, 1980), 자녀양육 기술이 부족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어머니의 연령이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연령과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국내 연구는 없으므로, 두 변수 관계를 다룰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 정보와 양육 기술과의 관련도 있을 수 있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도 관련되는 변수라는 면에서 어머니 관련 변수로 간주한다.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 의하면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이영석, 최외선, 1993; 정민자, 1992)가 제시된 반면, 고학력일수록 스트레스의 양도 적고, 심리적 손상도 적고 어머니로서의 역

할 수행에 따른 부담을 덜 겪으며 자신감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남유리, 1989; 진미정, 1993; 유희정, 1992)도 제시되었다. 한편, Barnett & Baruch(1985)와 White & Edwards(1990)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 역할에 따르는 스트레스와 역할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으므로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내적 자원인 건강과 어머니의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이영석, 최외선, 1993; 손현숙, 1992; Schaughency & Lahey, 1985)에 의하면, 어머니가 건강할수록 자아에 대해 긍정적이고 생활 만족도가 높아 일반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은 정신 건강과 관련있고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원천이 되므로, 어머니의 건강 상태와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어머니의 우울성향이다(Belsky, 1984). 우울성향을 보이는 사람은 매사에 흥미가 없고 삶의 의미를 부정한다. 이들은 비합리적 신념 체계와 부정적 자아상을 갖고 있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어 가기 힘들다(Ingram, Kendall, Smith, Donnell & Ronan, 1987).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우울을 호소하는 어머니들은 사실상 우울때문에 자녀 양육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다(Wahler & Dumas, 1989). 우울성향이 강한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충족시킬 만한 심리적, 물리적 에너지가 부족하여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하거나 주장을 할 수 없을 만큼 행동이 위축되어 있다(Webster-Stratton, 1988). 이들은 우울로 인해 자녀에게 필요한 관심을 표현

하지 못하고, 자녀의 일탈 행동을 모니터링하지 못하는 등(Dumas, Gibson & Albin, 1989), 자녀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자녀에 대한 거부감이나 적대감을 갖는다(Downey & Coyne, 1990)고 한다. 자녀 역시 우울성향이 많거나 건강 상태가 나쁘거나 부정적 자기가치감을 갖게 되고, 특히, 학동기 아동은 사회적, 학교사회에서의 역량감이 부족하고, 공격적이 되기 쉽다고 한다(Downey & Coyne, 1990).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어머니는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 어머니의 우울 성향이 부모-자녀관계에 치명적, 부정적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우울 성향과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다룬 국내의 연구가 없으므로 두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3) 가족 환경 변수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의미있고 중요한 변수로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들 수 있다. 여러 의미있는 관련 변수 중에서 가족의 소득, 남편의 직업, 어머니의 취업, 자녀 수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의 결과를 고찰한다.

가계소득과 남편의 학력이나 직업이 상위층일 경우,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자원이 풍부하여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심리적 여유를 주므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연구 결과(권경희, 1985)가 있는 반면,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에 따른 부담은 가계소득과 무관하다는 결과(진미정, 1993)도 제시되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구조적 만성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와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자녀 수이다(이광주, 1988). 자녀가 많을수록

가사노동과 경제적 부담의 증가로 스트레스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금순, 1984; 최동숙, 1989). 그러나 양육 스트레스에 국한해서 조사한다면, 오히려 한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자녀의 행동이 어머니의 기대와 다른 면으로 전개될 때의 당혹감 및 부모로서의 책임감등 심리적인 측면에서 양육 스트레스를 더 느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명한 탐색이 요구된다.

어머니의 취업 유무와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 결과 역시 일치되지 않는다. 생활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도는 취업 유무와 무관하다(장병옥, 1955; 정민자, 1992)는 보고도 있고, 취업 주부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결과(김경아, 1990)도 제시되었다. 비취업 주부는 취업 주부에 비해 자신에 대해 무가치하게 많이 느끼며, 정신적 갈등과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는등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남유리, 1989)고 보고됨으로써 취업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는 일관된 연구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해 취업 유무 자체보다는 직종에 따라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단순 노무직, 서비스직 취업 주부는 전문관리직 주부보다 작업 환경이 열악해서 신체적 피로도가 심하고,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에 따르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낀다(고은숙, 1992)는 것이다. 취업 자체보다 취업 직종에 따라 어머니 역할의 질이 다를 것이나, 양육 스트레스와 취업 유무 및 직종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미흡하므로 이 연구에서 다루어 질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자녀의 특성 어머니의 특성과 가족 환경 변수와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가 없고, 부분적으로 다룬 연구에서도 다양한 관련 변수를 다루지 못했

다. 또한 관련 연구의 결과도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본 연구에서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를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III. 연구문제

선행 연구에서 아동, 청소년, 주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생활사전에 대한 평가를 다룬 스트레스 연구는 많이 시도되었으나, 구체적인 양육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는 미흡하다. 부모-자녀관계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어머니의 영향요인을 동시에 다룬 양육 스트레스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인 우울 성향과 아동의 문제 행동 및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관련 변수(자녀의 학년별, 성별, 학업 성적, 건강 상태, 문제 행동 빈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관련 변수(교육수준, 건강 상태, 우울 성향,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는 가족 환경 변수(가계소득, 아버지의 직업,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 유무, 직종, 자녀 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V. 연구방법 및 절차

1. 표집 및 조사대상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1,4,6학년 국민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유의표집을 하였다. 자녀가 학교 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 1학년생의 어머니와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가 있을 수 있는 6학년생의 어머니는 자녀양육상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다. 상대적으로 4학년생의 경우 어느 정도 학교 생활에 적응하여 어머니로서의 양육 부담이 적을 수 있어, 3개 학년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스트레스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을 받으므로 중상류층이 많은 지역 소재의 학교와 중하 및 하류층이 많다고 판단되는 지역 소재의 국민학교를 선정하여 그들의 어머니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수집된 자료에 의거한 조사대상자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인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7.29세이며, 학력은 고졸이 50.3%로 가장 많고, 취업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31.3%에 이른다.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186만원이며, 남아의 어머니는 전체 어머니 중 50.3%이다.

2. 측정도구의 구성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 성향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양육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1990)이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지표 *Parenting Stress Index*의 120문항과 김영미(1990)가 번안한 Friedrich et al(1983) 제작의 QRS-F척도(The Questionnaire on Resources and Stress-F)의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PSI 척도는 아동 영역 47문항, 부모 영역 54문항, 생활 스트레스 영역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송주미(1992)는 이 가운데 부모 영역과 생활 사건 영역의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한 바 있다. 부모로서의 역량 부족등 부모 영역 스트레스가 양육 기능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고(Abidin, 1990), 이 연구의 초점 역시 아동의 문제 행동, 어머니의 우울성향 및 사회문화적 변수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 파악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부모 영역에 제한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다룬다. 부모 영역에 관한 양육 스트레스 척도는 우울, 애착, 역할 제한, 능력감, 사회적 고립, 배우자 관계, 부모 건강의 7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 건강을 제외하였다. 이 하위 영역은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SI 척도와 김영미의 척도의 검토 작업과 우리의 실정에 맞는 문항을 보완해서 총 40문항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를 구성하였다.

척도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변별력이 떨어지는 4문항을 제외하고, 요인분석을 다시 시도한 결과,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6개 요인은 전체 분산의 52.8%를 차지한다. 채택된 요인 구조는 자녀의 장애 및 올바른 양육에 대한 불안 영역이 28.0%,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감 및 우울 성향이 8.6%, 부모의 죄책감

및 역량감이 5.3%, 자녀 양육에 따르는 신체적 피로도 및 구속감 4.1%, 가족간 불화 3.6%, 자녀로부터 받는 심리적 상처가 3.0%를 설명한다.

이 작업을 통해 본 연구에서 분석된 양육 스트레스 척도는 3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스트레스를 전혀 느끼지 않은 경우는 1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5점의 값을 갖는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에 의해 내적 일치도를 산출하였는데 신뢰도 값은 .92이다.

2) 문제행동 척도

어머니의 자녀 행동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척도는 36문항의 7점 척도로 구성된 ECBI(Eyberg Child Behavior Inventory)와 100문항의 3점 척도로 구성된 CBCL(Child Behavior Checklist)이다. 본 연구에서는 ECBI를 모태로 하되 CBCL의 문항과 일치하는 문항을 우선 선택하고, 문항을 보완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문제행동 척도는 아동의 의식주 생활을 태만히 하는 행동, 부모의 훈육에 대한 저항 행동, 반사회적 또는 공격적 행동, 감정 통제를 못하는 충동적 행동, 인내력이 부족하고, 소심한 행동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행동 척도는 40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로, 문제행동을 전혀 거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점, 거의 항상 하는 경우에는 5점을 주었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에 의해 내적 일치도를 산출하였는데 신뢰도 값은 .88이다.

3) 우울성향 척도

본 연구는 우울장애의 발견이 주 목적이 아니고, 대상 역시 임상 집단이 아닌 일반인 집단인 점을

감안하여,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척도나 IDD(Inventory to Diagnose Depression) 척도보다 일반인 집단에서의 우울 증상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Radloff(1977) 제작의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al Depression Scale) 척도를 주 골격으로 하였다. CES-D 척도와 다른 척도의 문항과 공통인 문항을 선별 하되, 감정적인 요소, 즉, 우울한 기분에 초점을 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우울 척도는 17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로, 우울한 기분을 거의 전혀 느끼지 않은 경우는 1점, 거의 항상 경험한 경우는 5점을 주었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에 의해 내적 일치도를 산출하였는데 신뢰도 값은 .91이다.

3. 자료모집

본 조사에 앞서 1993년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국민학생 자녀를 둔 32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문항의 표현이 부적절한 것을 수정, 보충하여 본 조사용 설문지를 확정지었다.

본 조사는 1993년 10월 22일 부터 29일까지 국민학교 1, 4, 6학년생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중상류층이 많은 지역 소재의 3개 국민학교와 중하류층이 많은 지역 소재의 3개 국민학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회수된 설문지는 518부였으며, 이중 부실기재된 41부를 제외한 총 477부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서 사용되었다.

4. 자료의 분석 방법

조사대상자인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과 양육스

트레스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각각의 변수별로 빈도분포 및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관련 변수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 T검정, 일원변량분석 및 회귀분석을 하였다.

V. 결과 및 해석

1. 양육스트레스의 전반적 경향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항을 살펴보면 대체로 자녀가 아무 탈 없이 성장하여 사람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염려하는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 개별 문항의 빈도분포 결과, 대체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50% 이상을 상회한 문항은 어떻게 하면 바른 생각을 틀어 넣어 줄 수 있을지 걱정이고(55.6%), 아이의 장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어야 할지 걱정이며(54.5%), 부모 노릇하기가 생각보다 더 어렵다거나(53.7%), 아이가 나쁜 친구를 사귀지 않을 지 걱정이라는(52.6%) 문항이다.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해 죄책감을 호소하는 어머니도 전체 응답 어머니의 36.5%를 차지하고, 아이가 잘못할 때 마다 어머니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 같이 느끼는 어머니도 36.1%에 이른다. 그러나 어머니 자신의 개인적 삶이 뒷전에 밀려나거나(15.5%) 아이들 때문에 집안 정돈이 안되어 짜증난다거나(17.4%) 자녀 돌보느라 몸이 피곤하고(12.7%) 늙는 것 같아 속상하다는(11.9%)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고 있다. 또한, 아이로 인해 시댁 식구나 친척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거나(2.5%) 배우자와 멀어진 느낌이 든다(4.0%)는 어머니는 더욱 적다.

앞서의 경향은 가족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개인

적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에 따른 부정적 측면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끼기 보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여러 면에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의 역할 가운데 어머니 역할에 대한 가치 부여가 높고,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하며, 자녀를 가족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존재로 보는 우리 사회의 의식의 일면을 보여 주고 있다.

2. 연구문제 2의 검정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가 자녀 관련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T검정과 일원 변량분석을 하고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했다.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전체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위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자녀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자녀의 학년에 따라서는 우울 성향, 죄책감, 신체적 피로도 및 구속감 영역 등 3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저학년 자녀의 경우 어머니의 손

질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신체적으로 피곤하고, 개인 생활을 가질 시간이 부족하고,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를 처음 학교에 보내고 자녀를 잘 키워 보겠다는 의욕 및 기대 만큼, 어머니가 실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서 죄책감을 더 느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고학년 자녀의 경우, 자녀양육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및 우울성향을 호소하는 어머니가 많았다. 자녀가 성장해 감에 따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자녀는 또래 관계를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독립적이 되어 가는데, 어머니는 이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김영미, 1990; 정재은, 1993)의 결과와 일치되었다. 자녀의 건강 상태가 나쁘면, 자녀양육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부담이 되므로, 어머니들은 전 영역에 걸쳐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자녀의 학업 성적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학업 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업 성적이 중간이하인 경우, 어머니는 자녀의 장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자녀로부터 심리적 상처를 받으며, 자녀양육에 대

〈표 1〉 자녀의 건강 상태와 학업 성적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일원변량분석

변 수	빈도	평균	Scheffe	F/유의도
자녀의 건강상태	튼튼한 집단	230	81.77	a
	보통 집단	195	87.38	b
	약한 집단	50	91.64	b
자녀의 학업성적	상 집단	119	75.64	a
	중상 집단	210	86.74	b
	중, 중하, 하집단	140	90.61	b

P<.01 **P=.0000

한 부담과 죄책감을 갖는 등 양육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자녀의 성별이나 학년, 변수와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가 무의미하게 나타난 결과와 비교할 때, 이는 특이하고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자녀의 학업 성적이 부진할 때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은 공부 못하는 것을 자녀가 행하는 심각한 문제 행동으로 보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나친 학구열이 빚어낸, 우리 사회의 브끄러운 일면을 여과없이 보여 주는 것으로, 공부만 잘 하면 그릇된 고든 것을 눈감아 주는 분위기 속에서 자칫 어머니의 역할이 왜곡될 여지가 많다.

양육 스트레스와 문제 행동 빈도와와의 관계를 분석한 바, 자녀의 문제 행동 빈도가 증가할수록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의 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변수간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선행 연구(송주미, 1992; Mash & Johnstson, 1983)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자녀가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자주 하고, 소심하며 소란스러운 행동을 자주 하는 경우 어머니는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했다. 자녀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 양육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부모로서의 자전감이 결여되고, 부정적 경험이 누적됨으로써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적대적이 되는 등 부모-자녀간 부정적 상호작용의 고리가 계속 순환될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2〉 자녀의 문제행동 빈도와 양육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N=477)

양육스트레스	불안감	부담감 및 우울	죄책감	구속감	기죽단 불화	심리적 상처	전 체
상 관 계 수	.19***	.20***	.18***	.18***	.17***	.14***	.25**

***P < .0001 **P < .01

이상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자녀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녀의 성별과 학년을 제외하, 자녀의 건강 상태, 문제 행동 빈도와 학업 성적이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규명되었다.

3. 연구문제 3의 검증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 관련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 변량분석과 피어슨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연령 변수는 양육 스트레

스와 관련있는 의미있는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어머니보다 나이가 든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노련하게 더 잘 할 것이라는 생각과 교육을 많이 받은 어머니가 양육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많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뒤엎는 결과이다.

이에 비해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이 보다 두드러지는 어머니의 건강 상태와 어머니의 우울 성향은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나 선행 연구(손현숙, 1992: 이영석, 최희선, 1989: Sebest & Stratton, 1988)의 결과와 일치되었다. 어머니의 신체 건강은 정신 건강과 관련있고,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표 3〉 어머니의 건강 상태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일원변량분석

(N=476)

변 수	빈도	평균	Scheffe	F/유의도
어머니의 건강상태	튼튼한편	134	78.91	a
	보 통	271	86.76	b 9.06 ***
	약 한 편	71	90.48	c

***P < .001

〈표 4〉 어머니의 우울 성향과 양육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N=477)

양육스트레스	불안감	부담감 및 우울	죄책감	구속감	가족간 불화	심리적 상처	전 체
상 관 계 수	.38***	.51***	.47***	.40***	.37***	.49***	.57**

***P < .0001 **P < .001

원천이 된다.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나쁘면, 자신의 몸을 지탱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 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일에 대해 의욕을 상실하는 등 가사 및 양육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힘들고, 따라서 충분히 역할을 해 낼 수 없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는 것은 자명한 결과이다. 어머니의 우울 성향과 양육 스트레스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우울성향이 많은 어머니는 자녀 양육이 생각했던 바대로 되지 않을 때 더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며, 자녀에 대해 죄책감을 많이 갖고 있고, 자녀로부터의 마음의 상처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해하는 어머니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경우가 많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충족시킬 만한 심리적, 물리적 에너지가 부족하고 행동이 위축되는 등 자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므로 이에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이상,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어머니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 중에도 인구학적 특성 보다 심리적 특성과

관련있는 어머니의 건강 상태와 우울 성향이 양육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계인 변수로 확인되었다.

4. 연구문제 3의 검정

가족환경 변수가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거나 T 검정과 일원 변량분석을 하였다.

일원변량 분석을 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 수, 아버지의 직업과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에서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가계소득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직업, 교육수준, 가계소득은 사회계층을 구성하는 변수로,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시사되었으나, 이 세 변수가 생활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에는 주요한 영향을 미칠 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녀 수가 많은 경우에 일상생활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양육

스트레스도 많다거나, 오히려 자녀 수가 작은 경우에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자녀의 행동에 대한 당혹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 수 있어, 자녀 수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 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취업 유무나 직종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T검정과 일원변량 분석을 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로써,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가 전업주부보다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느라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자기성취보다 경제적 필요에 의해 하위직에 종사하는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리라는 생각이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게 나타났다.

이상 살펴본 바, 사회문화적인 배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관계 중 부모자녀 관계를 중시하며, 어느 계층에서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고 어머니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자녀나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연구문제 4의 검증

종속 변수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앞서의 분석 결과 양육 스트레스를 의미있게 설명해 주는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별 중회귀 분석을 하였다. 회귀 모형에 포함되는 독립 변수는 자녀의 문제 행동 빈도, 자녀의 건강 상태, 학업 성적, 어머니의 건강 상태, 어머니의 우울 성향이다. 자녀의 문제 행동 빈도와 어머니의 우울 성향은 연속 변수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고, 어머니와 자녀의 건강 상태와 학업 성적은 3점으로 서열화되어 있어 회귀 분석에 포함시키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기본 가정이 충족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 변수간의 상관관계수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독립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대부분 0.3 미만으로 독립 변수간의 독립성이 대체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표 5〉 참조). 또한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 중, 오차항의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이어야 하는데 오차항의 히스토그램과 도식화를 본 결과에서도 정규분포에 가까웠고, 평균이 0.002이고, 표준편차가

〈표 5〉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자녀 건강	학업성적	자녀문제행동	어머니건강	어머니우울
자녀 건강	1.00				
학업 성적	.84	1.00			
자녀문제행동	.07	.13*	1.00		
어머니 건강	.28**	.08	.05	1.00	
어머니 우울	.16**	.10	.16**	.29**	1.00
평균	1.63	2.04	87.25	1.87	31.18
표준편차	.67	.74	45.84	.65	10.73

** P<.001 * P<.01

1.0002로서 기본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오차항간의 상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Durbin-Watson계수를 조사하였다. 이 결과 Durbin-Watson계수는 2.05로서 잔차간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귀분석 결과, 5 독립 변수의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표준화된 회귀 계수 β 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참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어머니의 우울 성향이며 ($\beta=.53$), 두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녀

성적($\beta=.18$)이며 세번째로 유의한 변수는 자녀의 문제 행동 빈도($\beta=.16$)이다. 일원변량 분석에서 어머니의 건강 정도와 자녀의 건강 정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나으나,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할 때,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우울 성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 성적이 낮을수록, 자녀가 문제 행동 빈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며, 이 세 변수는 전체 양육 스트레스의 38.76%를 설명하고 있다.

〈표 6〉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수의 독립적 효과

(N=477)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회귀 계수 β	R ²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 우울 성향	.53 ****	38.76%
	자녀의 학업 성적	.18 ****	
	자녀의 문제 행동	.16 ****	

**** P=.0000

IV. 결론 및 논의

본 장에서는 앞서의 분석에 따른 주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맺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학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가 바른 생각을 갖고 큰 사고없이 무사히 자랄 수 있는가에 대해 걱정하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염려하고 있다. 자녀와 어머니가 미분화된 채, 자녀의 잘못에 대해 자책감을 느끼며, 부모 역할을 다하지 못함에 죄책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심리적 부담감을 경감시키기 위한 부모 역할과 양육 기술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대해 자신감이 결여되고 혼란스러워 할 때 이의 부정적 영향력이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파급되기 때문에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학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자녀 수, 자녀의 성별과 연령,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 유무 및 직종에 따라 차별화되지 않았다. 일반적인 생활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으나, 양육 스트레스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어머니와 자녀의 건강 상태는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관련 변수의 독립적인 효과를 알아 보았

을 때, 두 변수의 영향력은 의미가 없었고, 어머니의 우울성향이나 자녀의 학업성적, 자녀의 문제 행동빈도에 따라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는 달랐다. 결국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집단의 어머니들이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는 공통적인 것이며 오히려 양육 상황에서 부딪치게 되는 어머니와 자녀의 개인적 성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우울 성향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크므로, 어머니 스스로 삶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이 요구되며,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역동적인 시각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녀의 학업 성적에 따라 학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는 달랐다. 학업 성적이 낮은 경우 어머니들은 전반적으로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다. 학교 성적만 좋으면 아이의 장래를 보장받게 된다는 업적 제일주의가 빚어낸 현상이기도 하고, 학교 성적 부진을 학동기 자녀의 심각한 문제 행동으로 간주한 결과일 수 있다. 이는 학교공부만 잘 하면 다른 어떠한 행동을 잘못해도 그만이라는 부모들의 안일한 생각에 우리의 아이들이 불균형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는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중·고등학생도 아닌 학동기 자녀의 어머니에게서 나타난 모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망국적인 지나친 학구열을 잠재울 수 있는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시도가 학교 교

육과 사회 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어진 선행 연구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양육 스트레스의 현황을 밝히고, 관련 변수와의 관계만을 다루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연구에서 중시하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나 지원 체계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열이 날로 높아져가는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압력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사해서 보다 역동적으로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 스트레스와 선행 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다양한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다룸으로써 학문적으로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의 부모 자녀관계를 설명하는데 Belsky의 상황적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본 바, 자녀와 어머니 개인 특성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나서 나름대로의 설명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실용적으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어머니의 정신 건강과 직접 관련있는 스트레스를 다룸으로써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녀에게로 분출됨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경고하고 이들의 문제를 다루어 줄민한 가족 생활 상담소나 교육원 설립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고은숙. 1992. 「취업 부인의 스트레스, 내외통제성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권경희. 1985. 「한국도시 주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아. 1990. 「기혼여성이 지각한 가정경영상의 스트레스 수준 및 관련 변인 고찰」,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미. 1990. 「뇌성마비 아동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유리. 1989.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스트레스 지각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인숙. 1993. 「자폐아동의 적응행동수준과 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손현숙. 1992. 「도시 주부의 자아 긍정감과 의사결정 공동 참여가 일부 가정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송금순. 1984. “일부 도시 생활인의 스트레스 정도와 해소에 관한 조사연구”, 「춘천 간호보건 전문대 논문집」 14, 86~97.
- 송주미. 1992. 「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모의 자녀행동 지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희정. 1992. “자녀교육과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 연구회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181~216.
- 이광주. 1988. 「주부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응 방법에 관한 연구」, 호성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숙·최외선. 1993. “개인적 자원이 스트레스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 가정학회지」 31권 2호, 97~109.
- 이재연, 최영희. 1990. 「아동발달」, 서울: 문음사.
- 이정균. 1984. 「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 장병옥. 1984. 「도시 주부의 스트레스 인지 수준 및 적응 방법에 관한 연구」, 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세경. 1988.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
- 정민자. 1992. “임상-정상 가족의 가족체계 유형 및 가족 스트레스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권 2호, 87~102.
- 정재은. 1993. 「정신지체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진미정. 1993.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 역할 수행 부담과 심리적 복지」,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동숙. 1989. “부부간의 스트레스 인지 수준 및 디스트레스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권 1호, 165~179.
- 한국교육개발원 편저. 1993. 「한국의 교육열」.
- Ai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arnett, R. C, & Baruch, G. K. 1985. “Women's Involvement in Multiple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 of Perp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 135~145.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oss, P. G. 1987. “Family Stress.” In M. B. Sussman & S. K. Steinmentz(eds.) *Handbook of Marriage & the Family*. New York: Plenum Press. 620~724.

- Downey, G., & Coyne, J. C.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608, 1, 50~76.
- Dumas, J. E, Gibson, J. A. & Albin, J. B. 1989. "Behavioral Correlates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atology in Conduct-Disorder Children."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4, 516~521.
- Field, T. M., Widmayer, S. M., Stringer, s., & Ignatoff, E. "Teenage, Lower-Class, Black Mothers and their Preterm Infants : An Intervention and Developmental Follow-up." *Child Development* 51, 426~436.
- Ingram, R. E., Kendall, P. C., Smith, T. W. & Donnell.P.C. 1987. "Cognitive Specificity in Emotinal Distres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4, 734~742.
- Lahey, B. B., Conger, R. D., Atkeson, B. M., & Treiber, F. A 1984. "Parenting behavior and emotional stafus of physically abusive mothers." *J. of Consulting and Chnical Psychology* 52, 1062~1071.
- Mash, E. J. & Johnston, C. 1983.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elf-Esteem, and Mothers' Reported Stress in Younger and Older Hyperactive and Normal Children."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1, 86~89.
- Pagelow, M. D. 1984. *Family Violence* New York : Praeger.
-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Inc.
- Schaughency, E. A. & Lahey, B. B. 1985. "Mothers' and Fahters' Perceptions of Child Deviance : Roles of Child Behavior, Parental Depression, and Marital Satisfaction."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liology* 53, 5, 718~723.
- Stars, R. H. 1988. "Physical Abuse of Children. "In V.B.Van Hasselt, R.L. Morrison, A. S. Bellack & M. Hersen 119~156.(eds.) *Handbook of Family Violence*. New York : Plenum Press.
- Wahler, R. G. & Dumas, J. E. 1989. "Attentional Problems in Dyfunctional Mother-Child Interactions : An Interbehavioral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05, 1, 116~130.
- Webster-Stratton, C. 1988.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Child Deviance : Roles of Parent and Child Behaviors and Parent Adjustment."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gy* 56, 909~915.
- White, L. & Edwards, J. N. 1990. "Emptying the Nest and Parental Well-being : An Analysis of National Panel Data." *American Socioligical Review*, 55, 235~242.